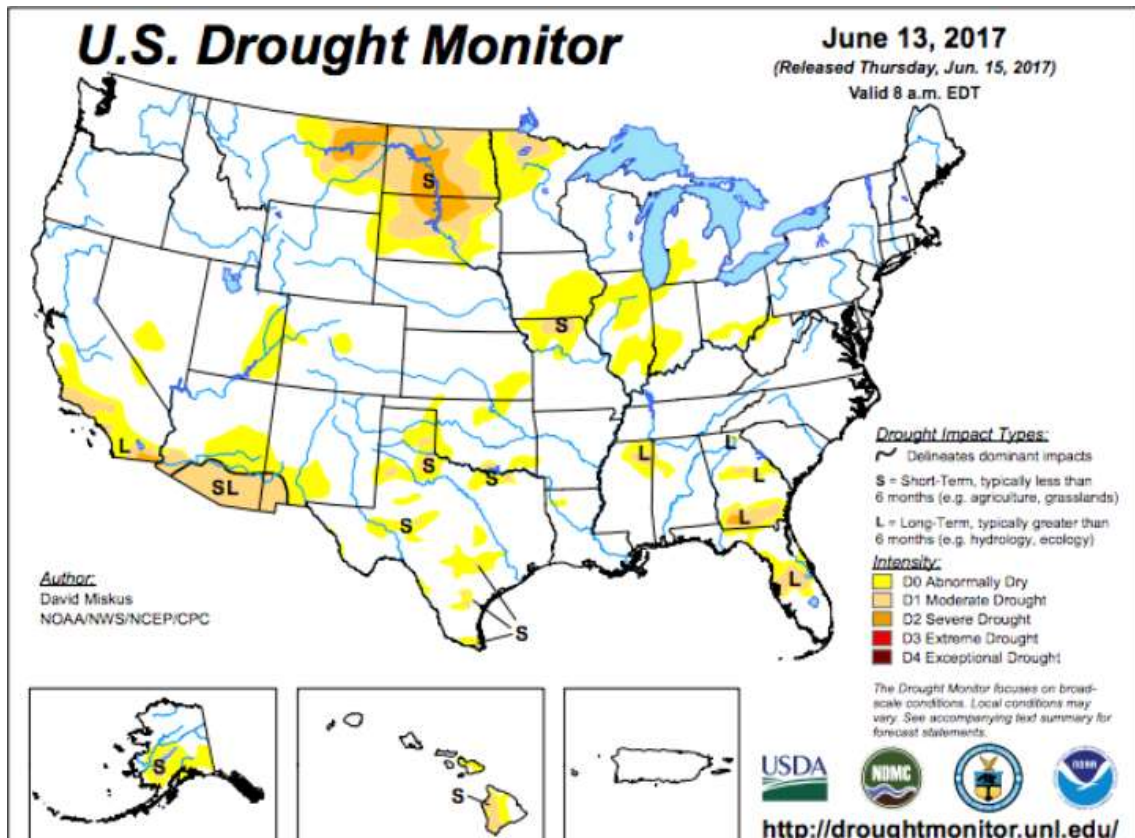


6월 2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25)

□ 미국 기후 현황(6/11~6/17)

중서부에서는 천등번개를 동반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노스 다코타와 사우스 다코타의 동부지역을 비롯한 북부 평원 지역에서도 비가 내려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하지만, 몬태나 동부 및 다코타 서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가뭄은 심화되고 있다. 중부와 남부 평원 일대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를 보였고, 겨울밀 수확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은 평년에 비해 10°F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동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까지 내려 곳곳에서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북서부 일대에서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렸고, 서부에서는 주말 전까지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씨를 보였지만, 주말에 갑작스러운 더위가 찾아와 기승을 부렸다.



□ 농업 현황 요약(6/12~6/18)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특히 주요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정도 높았다. 로키산맥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다. 동부 일대에서는 곳곳에서 비가 내렸는데, 중서부 및 걸프만 연안의 동부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다. 남서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 세계 기후 현황(6/11~6/17)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잉글랜드 및 발칸반도 북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낮 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 북동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1~44°C까지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포르투갈 중부와 북부에서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산불피해도 발생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2~25°C까지 올랐고, Po Valley 중류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려 더위를 잠시 식혀주었다. 그리스에서는 10~60mm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에서는 작물 생장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서부와 남부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토양 수분 함량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부와 중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렸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과의 국경 지역에서 재배 중인 옥수수, 대두의 생육 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지만, 서부와 중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양쯔강 남부 일대에서는 최소 25mm의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서는 50~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고, 특히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반면, 동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밀 수확작업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종료를 앞두고 있다. 북동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10mm 미만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한편,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1~4°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이 40°C 이상 오르는 지역도 있었다. 북동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누적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한반도와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며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새로 파종한 작물들이 정상적으로 발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서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2°C 정도 높은 편이고, 낮 최고기온은 10°C 후반에서 2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면화 등을 재배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La Pampa, Buenos Aires 등 남부 농경지역에서는 주말에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5°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옥수수,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54%, 9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빠른 편이다. 같은 기간 기준 밀의 파종률은 35%였고,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2%에 비해 빠른 편이다.

■ 브라질: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다. 중부의 Maro Grosso에서부터 Bahia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 보다 남부의 Rio Grande do Sol에서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고,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4일 기준 밀 파종률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의 같은 기간 기준 5년 평균 파종률인 50%에 비해서는 매우 느린 편이다. Parana 북부에서부터 Rio de Janeiro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